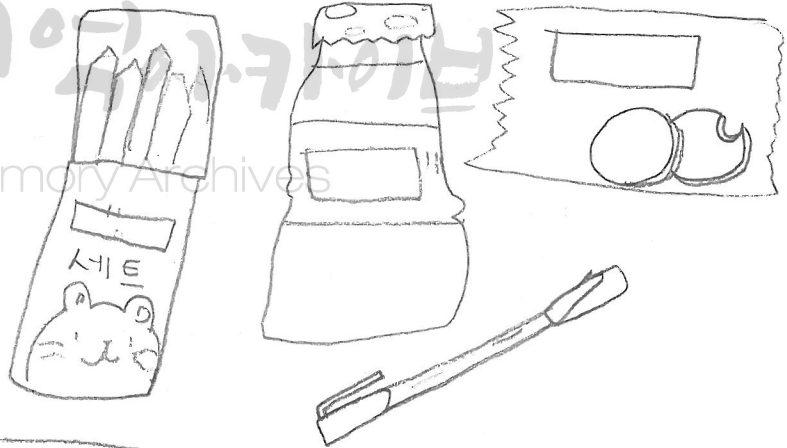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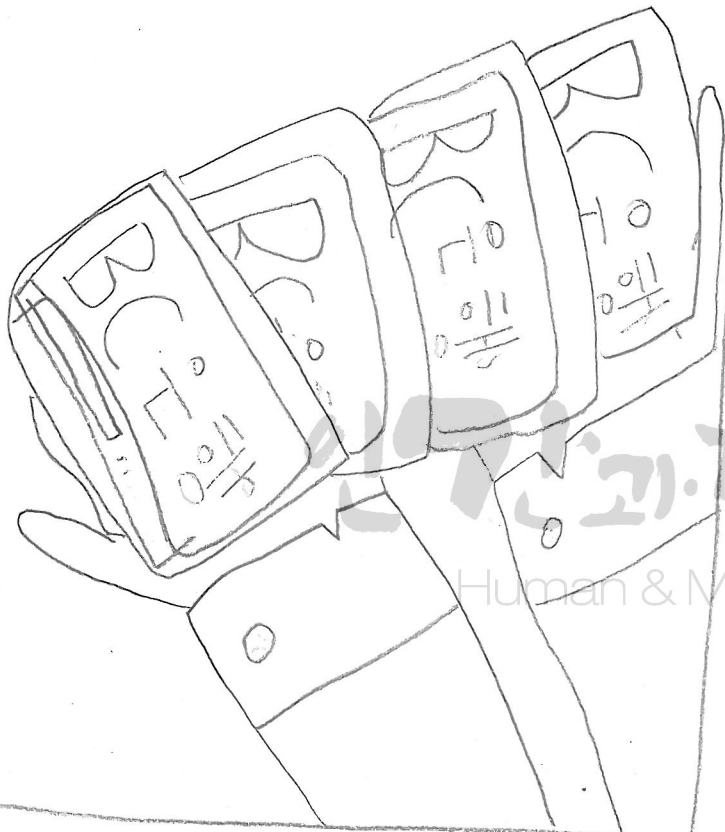


이름: 박진	이메일: 없음
나이: 11살	직업: 학생
거주지역: 전세주택	
본 행사 참여경험 (우측 해당란에 √ 체크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2013 <input type="checkbox"/>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6 <input type="checkbox"/> 처음 참여

학교 용돈 쓰는 날



오늘은 점심, 5교시 시간에 사랑은행을 하는 날이다. 각조의 사랑은행이
 학교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용품을 사는 것이다. 근데 그날은 내가 사랑은행
 이었다. 학교 돈은 '시앗'이라고 부르는데 시앗은 평정하게 자세 바르게 하기
 등으로 변할 수 있다. 월급은 70시앗, 세금은 20시앗이다. 사랑시장에선
 보통 물품이 70~80시앗 정도인데, 쿠폰은 120~200시앗까지 있다.
 가장 비싼건 명화, 라디바꾸, 책, 필기구 등이다. 이번엔 특별히
 할인을 했다 하지만 역시 사서 가지는 사람이 많았다. 돈을 쓰거나 경제에
 대해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배우고
 가치의
 소중함을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hmarchives.org/omeka/512diary/index.html>

날것 같았다. 내가 사고 싶은걸 사서 마음이 후련했다.